

# 광주비엔날레 비춘 이들 베니스비엔날레 빛낸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임흥순, 남화연, 오쿠이 엔위저, 문경원, 전준호.

광주 출신 미디어아티스트 남화연씨 등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했던 작가와 감독이 오는 5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제56회 2015 베니스비엔날레'에 잇달아 참여한다.

지구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술 축제인 베니스비엔날레 본전시에서 참여하는 한국작가 3명 중 2명이 광주비엔날레 출신으로 지난 20년 동안 쌓아온 국제적 위상과 네트워크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앞서 2008광주비엔날레 총감독을 지냈던 오쿠이 엔위저가 지난 2013년 말 2015베니스비엔날레 총감독으로 선임되면서 마시밀리아노 지오니(2013베니스비엔날레·2010광주비엔날레 총감독)에 이어 2회 연속 광주비엔날레 출신 감독들이 베니스비엔날레로 직행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베니스비엔날레 미술전 본전시에는 남화연, 임흥순, 김아영씨가 초대받아 '모든 세계의 미래'(All the World's Futures)를 주제로 작품들을 선보인다. 한국 작가들이 베니스비엔날레 본전시에서 참여하는 것은 지난 2009년 양혜규, 구경아 이후 6년만으로, 이들은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했던 제레미 델러, 광주 폴리리 만들었던 락스 미디어 콜렉티브 등 세계적인 작가들과 나란히 작품을 선보이게 된다.

광주가 고향인 남씨는 오쿠이 엔위저가 기획한 제7회 광주비엔날레에서 독특한 텍스트와 연극적인 요소를 배치한 15분 분량의 영상 작품 '망상해수욕장'(Delusion Beach)을 선보여 주목받은 작가다. 이듬해인 2009년 에르메스 미술상을 수

**남화연·임흥순·전준호·문경원 등 오쿠이 엔위저, 총감독 맡아 특별전엔 이매리·이이남 작가**

상한 그녀는 미국 뉴욕 파슨스 디자인학교에서 아트마케팅을, 미국 코넬대에서 조소를 전공한 뒤 국내에서 전시를 가졌다. 베니스비엔날레에서는 17세기 네덜란드 황금시대의 틀립 파동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영상작업 '욕망의 식물학'(The Botany of Desire)을 선보일 예정이다.

다큐멘터리 영화감독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임씨는 2002년, 2004년, 2010년 등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에 3차례나 이름을 올린 작가다. 도시 공간, 그 안에 살고 있는 개인의 역사, 지역, 공동체 문제를 사진, 비디오, 공공미술프로젝트 등으로 작업해온 그는 지난 2010년 제8회 광주비엔날레에서는 소외 계층의 삶을 다룬 2채널 비디오 작품 '추억록'을 전시했다. 베니스비엔날레에서는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등에서 촬영한 '위로공간'이라는 영상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2012광주비엔날레 눈 예술상'을 수상한 전준호·문경원씨는 한국관 참여 작가로 베니스비엔날레에서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그룹인 이들은 제9회 광주비엔날레에서 선보인 영상작품 '세상의 저편'(13분45초)에서 급격한 기후변화로 변해버린 미래 환경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를 다뤄, 화제를 모았다. 영화배우 이정재와 임수정이 출연

해 화제를 모았던 이 작품은 같은 해 열린 카셀 도큐멘타에 초청되기도 했다.

본전시와 국가관 이외에 마련되는 2015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에도 이매리씨와 이이남씨 등 광주비엔날레 출신들이 참여해 눈길을 끈다.

중국 상하이 히말라야 뮤지엄 소속 작가로 중국 작가 8명과 함께 베니스행에 오른 설치 작가 이매리씨는 2012년 제9회 광주비엔날레에서 박상화, 장한별, 김한열, 강은 작가와 '비밀밥'이라는 프로젝트 팀을 이뤄 무등산을 테마로 한 '숨, 숨, 침 그리고 집'을 선보였다.

2002년 제4회 광주비엔날레에서 클레이 애니메이션 작품을 출품했던 이이남씨는 '개인적인 건축물(Personal Structures)'이라는 타이틀로 팔라조 뎀보에서 개인전을 연다. 올해 베니스비엔날레는 5월9일부터 11월22일까지 열리며 53개국 136팀의 작가들이 참여한다.

한편 지난해 열린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에서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출신 조민석 커미셔너가 기획한 한국관이 65개 국가관 중 최고 영예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다. 조씨는 2011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 안토니 폰테오와 지난 100년간 디자인을 이끌었던 100개의 이름을 선정한 뒤 컨셉로 라리 디자인, 역사적 디자인, 이벤트성 디자인 등 세 카테고리로 구성된 '유명전'(Named Design)을 공동기획했다. 한국에 최초로 황금사자상을 안긴 한국관 전시 '한반도 오감도'전은 오는 5월10일까지 서울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제2전시장에서 전시되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

## 꽃그늘 아래에서, 너를 기다려

갤러리D 31일까지 정물·팝아트·사진 등 총망라

갤러리D는 오는 31일까지 봄을 맞아 꽃을 주제로 한 전시를 선보인다. '꽃그늘 아래에서, 너를 기다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호남화단을 대표하는 작가인 오지호, 임직순, 최상중, 강연준 화백의 작품에서부터 예향의 전통을 계승하는 오승우, 송용, 박동신, 정상섭 작가에 이르는 다채로운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작품의 구성적인 정물과 팝아트 그리고 사진작품까지 시대와 장르를 망라한 다양한 꽃 작품들이 전시된다.



임직순 작 '정물'

한국 인상주의 회화의 대가인 오지호 화백의 '칸나'는 선명한 붉은색, 초록색과 함께 재치 있게 배치된 흰색 꽃의 구도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빛을 받아 변하는 꽃을 오 화백 특유의 화려하고 한국적인 색채로 보여준다.

최상중 작가와 오승우 작가는 안정적인 구도와 뛰어난 색채감각, 감각이 어우러진 세심한 붓 터치를 통해 모란을 담아낸다. 임직순 작가의 '정물'과 송용 작가의 '장미'는 차분하고 밀도 있는 구성과 색채를 통해 따뜻한 정감을 전하며, 허반영 작가의 '장미'는 강렬하면서도 세밀한 붓 터치와 구성력을 보여준다. 반면 패티화된 색채의 장미를 두껍게 중첩된 물감과 화려한 색채로 표현하는 최영훈 작가의 '장미'는 시각적 화사함 등을 대비시키며 강한 인상을 남긴다. 문의 062-222-801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광주시향 20일 정기연주회... 클래식 토크 먼저 참여하세요

광주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현정'이 오는 2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는 객원 지휘자 도날드 슐라이커(왼쪽)가 이끈다. 일리노이대학 음악감독과 지휘교수인 그는 파인 마운트 뮤직페스티벌에서 음악감독 등을 맡고 있다.

첫 곡은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서곡이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으로 클래식 팬들에게 익숙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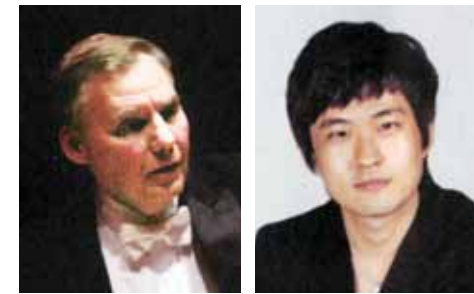
두번째 곡 쇼팽의 '피아노협주곡 1번'은 피아니스트 김다솔(오른쪽)이 협연한다. 지난 2012년 광주시향과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2번'을 협연한 적 있는 김다솔은 요즘 가장 각광받고 있는 젊은 아티스트다.

하노버 국립음대에서 수학중인 김씨는 2011년 프랑스 에피날 콩쿠르에서 우승했으며 2010년 퀴엘라지베스 콩쿠르, 2011년 뮌헨ARD국제음악콩쿠르 등에서 입상했다. 2013년 금호아트홀 상주 음악가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피아노 곡 쇼팽의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4번'이다. 동성애적 성향을 억누르고 평범한 결혼 생활을 시도했다 파국으로 끝난 그가 심한 우울증 등으로 고생하던 시절 만든 작품으로 그의 6개 교향곡중 가장 자전적인 곡으로 꼽힌다.

### pm 6:20 클래식 토크

쇼팽·차이코프스키 작품 설명  
청소년 악기 체험 행사도



### pm 7:30 본 공연

도날드 슐라이커 지휘  
김다솔 피아노 협연

지난 2월 광주시향이 처음 진행한 '클래식 토크'는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였다.

이날 강의를 맡은 최유준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겸성인문학연구원 HK교수는 연주회 레퍼토리인 엘가의 '첼로협주곡',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려 큰 호응을 얻었다.

전문 클래식 해설가와 함께하는 공연 연계 강좌 '클래식 토크' 두번째 행사가 20일 오후 6시20분부터 7시 10분까지 광주문화회관 리셉션실에서 열린다.

전남대 음악학과 환경진 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이날 연주곡인 쇼팽의 '피아노협주곡 1번',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4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 다. 무료 강좌다.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20일 공연 전인 오후 6시50분부터 20분간 대극장 로비에서 '악기야 놀자! 악기 체험하기' 행사를 진행한 다. 공연에 사용하는 악기를 전시하고 교향악단 단원들이 악기에 대한 설명과 연주법을 알려주고 악기를 체험해 보는 시간이다. 문의 062-415-5103.

티켓 가격 3만원~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파라다이스 빛**  
5회연속 선정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이태리 가구 40% OFF SALE**

www.hong79.com(홍친구닷컴)   신상품 다량 포함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동구청옆) **가구빌딩**   ☎ 1899-0240   이태리가구 직수입 판매   3월 19일까지